



## 원효의 외침에 응답하는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박찬국,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저자  
(Authors) 박용주

출처  
(Source) [한국민족문화 \(56\)](#), 2015.8, 457-464(8 pages)  
[Journal of Koreanology \(56\)](#), 2015.8, 457-464(8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07015>

APA Style 박용주 (2015). 원효의 외침에 응답하는 박찬국. 한국민족문화(56), 457-4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30 13:18 (K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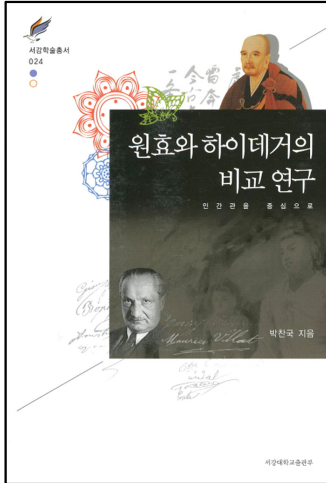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평



**원효의 외침에 응답하는 박찬국**  
 -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박찬국,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박용주\*

1.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미래에 역사가들에게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꼽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와 그리스도교를 대체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현재 서양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기독교를 넘어선 것은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 불교가 기독교를 대체한다는 것도 무망한 일이지만 토인비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명사적 사건으로 2차 세계대전이나 공산주의의 몰락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불교와 서양과의 만남을 제시한 것은 탁월한 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방식으로 문명과 문명이 만날 때 그런 만남은 불후의 사상사적 생산물을 남긴다. 서양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만남은 아우구스티누스

---

\*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naciketa@hanmail.net)

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교부철학과 스킨라철학이라는 두 자식들을 낳았고, 중국에서는 중국전통사상과 불교가 만나 선불교와 신유학이라는 두 자손을 생산했다. 따라서 현재보다 큰 스케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 어떤 사상사적 사건들을 일으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느 만남과 달리 사상과 사상의 만남은 그 만남을 주선하는 학자의 두뇌를 빌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박찬국은 그의 두뇌를 이러한 만남의 장소로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덕을 쌓아왔다. “나는 서양철학을 전공으로 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는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을 비교하는 것을 나의 일생의 철학적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책머리에)

## 2.

불교사상과 서양철학의 비교에 있어 우선적으로 원효와 하이데거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이 땅에서 활동했던 최고의 불교사상가와 20세기 서양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를 대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이외에 어쩌면 박찬국의 귀에는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베었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는 천육백여년 전 신라 땅에서 울려 퍼졌던 원효의 외침이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의 외침에 응답한 무열왕(김춘추)이 원효와 요석공주(瑤石公主)의 만남을 위한 자리를 요석궁에 마련하여 설총(薛聰)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원효의 외침을 들은 박찬국이 원효(元曉, 617-686)와 하이데거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두뇌를 빌려 준 것은 아닐까.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의 출간이 설총과 같은 위인의 탄생에 비견될 수 있다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원효와 하이데거의 의미 깊은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도끼를 빌려 달라는 원효의 외침을 들은 동시대 학자는 박찬국만이 아닐 것이다. 김형효(『원효의 대승철학』, 소나무, 2006), 신오현(『원효철학 에세이』, 민음사, 2003), 김종욱(『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등과 같은 국내의 걸출한 철학자들이 서양철학이라는 도끼에 원효라는 도끼자루를 맞추어 보려고 시도하면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겼다. (이 중 신오현은 하이데거가 아니라 스피노자라는 또 다른 도끼를 빌려오고 있어 주목을 요하고 있다.) 이들 중매자들과 다른 박찬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원효와 하이데거의 만남을 주선하는 의도가 깨달음이라는 실천적 문제에 정향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의 관심이 깨달음이라는 실천적 문제에 정향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저술의 중심내용이 ‘비본래적인 실존에서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도약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깨달음(시각, 始覺)에 대한 원효의 분석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술의 주요 내용은 총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하이데거와 원효의 인간관의 비교 ② 원효의 불각의와 하이데거의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을 비교 ③ 비본래적인 실존에서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도약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깨달음(시각, 始覺)에 대한 원효의 분석을 비교 ④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원효의 진여개념의 비교 ⑤ 하이데거와 원효의 사상이 현대기술문명에서 가지는 의미. 이 중 핵심적인 부분은 논의되고 있는 분량만 감안하더라도 ③이라고 볼 수 있다. ①과 ②는 ③을 위한 준비로 ④는 ③에서 밝혀진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⑤는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비오는 날 당항성 무덤에서 만났던 깨달음의 기연(奇緣)은 잘 알려져 있다. 보통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마실 의향이 있겠지만 결국 썩은 물을 마시면 역겹다는 깨달음 이외에 다른 깨달음은 얻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박찬국의 저술을 떠받치고 있는 감추어진 문제들은 보통사람과는 달리 ‘왜 원효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깨달음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탐색일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저

자의 의도를 적중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한 문제들을 통해 이 저술에 접근한다면 다소 난해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쉬운 학술서적을 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3.

불각(不覺)에서 각(覺)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전환의 기연(機緣)을 선불교(禪佛敎)에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 부화시기가 되어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려면 알 안에 있는 병아리와 알 밖에 있는 어미 닭의 협동이 필요하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대는 것을 ‘줄(啐)’이라고 한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할 수 있다. 『벽암록』에 등장하는 이 말은 깨달음의 순간에 제자의 수행과 스승의 조력이 함께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원효가 주석한 『대승기신론』에서는 불각에서 각으로의 전환과정이 이처럼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대승기신론』에서 제시되는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하이데거와의 연관성을 명료하게 도식화하기 위해 줄탁동시와 연관된 병아리의 부화과정을 비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병아리가 알 속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불각(不覺)으로 보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것을 각(覺)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병아리가 알 속에 계속 머물고 있을지 알을 깨고 나올지는 알 속에 있으려고 하는 힘과 알을 깨고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의 길항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대승기신론』의 용어로 표현하면 염법훈습(染法薰習)과 정법훈습(淨法薰習)의 길항관계라고 할 수 있다. (훈습은 옷에 원래 향기가 없었지만 향이 베이면 그 때문에 향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염법훈습은 중생은 본래 깨끗하지만 더러운 염법에 물드는 것을 말한다. 염법훈습의 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각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병아리를 잠들게 하여 알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힘을 증장시키는

것을 염법훈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염법훈습을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면 실존을 비본래적 현존재로 머물게하는 퇴락(頹落, Verfall)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본래적 실존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세계 내부적 존재자어로 몰두하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한다. 비본래적인 실존은 격차성과 평균성과 평준화 그리고 호기심과 빈말과 애매성을 본질적인 성격으로 지니는데 이런 성격은 쉽게 말하자면 남 못지않고, 남부럽지 않고, 남부끄럽지 않게,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본래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면서도 자신이 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퇴락의 운동양식을 하이데거는 소용돌이(Wirbel)이라고 부른다.

이런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증장시키는 것을 정법훈습이라고 한다. 원효에게 있어 생성소멸하는 불각의 세계를 혐오하게 만드는 정법훈습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자신을 고지하는 깊은 권태나 불안(Angst)과 같은 근본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본래적 실존은 알 속에 있는 것(남들처럼 사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불현듯 그것에 깊은 권태를 느끼고 알속에서 자신의 실존가능성이 소진되어 버릴 것에 대한 불안 아니면 알 바깥 세계에 대한 예감을 동반한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들어 있던 근본기분 자체를 일깨우는 것(Wach-werden-lassen)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근본기분을 일깨운다는 것은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근본기분이 일깨워지는 것은 원효에게 있어서 정법훈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정법훈습을 다시 진여훈습(眞如薰習)과 정법망심훈습(淨法妄心薰習)으로 나누고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증장시키는 것이 정법훈습이라면 이런 힘을 두 가지 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병아리 자신이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닭의 보살핌이다. 아직 알 밖으로

나오지 못한 병아리를 망심(妄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망심이 정법을 혼습하는 것이 정법망심혼습이고 이미 알껍질 밖에 있는 존재인 어미 닭은 진여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진여혼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이데거에 있어서 진여혼습과 정법망심혼습의 구분에 상응하는 요소들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존재의 소리를 진여혼습으로 볼 수 있다면 알 안에서 호응하는 귀기울임을 정법망심혼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미 닭이 21일 동안 따뜻하게 알을 품는 것을 진여혼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미 닭의 정성에 호응하여 병아리가 자신의 생명력을 증장시키는 것을 정법망심혼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고지해온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를 침묵 속에 빠져들게 하면서 자신의 고요한 소리(Geläut der Stille)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근본기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침묵 속에 빠지게 되며, 고요한 정적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존재의 고요한 소리가 진여혼습이라면 존재의 소리에 귀기울여 스스로 침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정법망심혼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알 속에 갇혀 있는 망심(妄心)이지만 발심(發心)과 수행의 정도에 따라 알을 깨고 나오려는 활동력인 정법망심혼습은 점점 더 강해진다. 원효는 정법망심혼습을 그 활동력에 따라 분별사식혼습(分別事識熏習)과 의혼습(意熏習)으로 나눈다. 혼습의 활동력의 차이는 중생이 열반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활동력이 낮은 분별사식혼습에서 중생은 열반을 추구하지만 열반에 집착한다. 분별사식혼습에서 더 나아간 의혼습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데 몰두한다.

#### 4.

당항성 무덤에서 일어난 원효의 깨달음은 아마도 원효의 정법망심혼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찾아왔을 것이다.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첩자로 오

인 받아 목숨이 위협했던 첫 번째 유학시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뱃길을 통해 중국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그의 정법망심 훈습의 정도는 가늠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원효가 간혀 있던 무명(無明)의 알껍질을 바깥에서 해골이 쪼아 주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진여자체가 원효에게 드러나는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도 요행이 아니다. 원효의 발심과 수행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대는 ‘줄(啐)’이라고 한다면 해골물의 기연과 진여의 드러남은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탁(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사람이 해골물을 마셔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줄(啐)없는 탁(啄)이라서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훈습을 용훈습과 자체상훈습으로 다시 나누는데 해골이 담긴 썩은 물의 작용과 진여의 드러남은 각각 진여훈습중의 용훈습(用熏習)과 자체상훈습(自體相熏習)의 궁극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상훈습이 진여자체의 훈습이기 때문에 자체상훈습을 완전히 실현한 것이 깨달음이라면 용훈습은 깨달음의 외적 계기에 해당한다. 원효에게 있어서 자체상훈습이 깨달음의 실현으로 나타났다면 용훈습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용훈습이란 일반적으로 진여(眞如)가 다른 인간들이나 부처로 나타나서 증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지만 이 외적 계기를 인간이나 부처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은 진여의 나뭇이고 깨달음의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용훈습이 될 수 있다. 원효에게는 해골의 썩은 물이 용훈습으로 작용한 것이다. 무정물(無情物)의 용훈습인 무정설법(無情說法)은 소동파(蘇東坡)가 보았던 폭포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골에 담긴 썩은 물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기울이는 자에게만 들릴 뿐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렇게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잠들어 있던 근본기분은 일깨워진다고 한다. 원효를 진리를 구하기 위한 여정으로 내몰았던 근본기분이 실존적 불안(Angst)이라 추정한다면 해골물을 확인하고 느꼈던 근본기분은 경악(Erschrecken)이었을 것이다. 박찬국은 불안이라

는 기분 자체는 어떤 가능한 결단으로 이끌어갈 뿐 본래적인 가능성을 인수하는 결단 그 자체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안이라는 기분에서는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되더라도 온전히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은폐된 채로 개시된다는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에서 불안이라는 기분은 전기 하이데거에서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경악과 경외(Scheu)가 통일된 겹혀(Verhaltenheit)가 존재망각에서 존재에 대한 회상으로 나아가는 근본기분이라고 규정된다. 이것이 아마도 천육백여년전 어느 날 당항성에서 원효가 처음으로 느꼈던 기분이 아닐까.